



#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 GOLDEN CLUB NEWSLETTER

OCTOBER 2024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50



### Hudson Hill Golf Club에서

9월 12일 웨체스터에 사는 이위곤 회원의 소개로 모처럼 Hudson Hill에서 9월 골프대회를 가졌다. 골프치기에 아주 좋은 날씨에 모두 27분이 참가하여 기량을 뽑냈는데, 이 코스는 상당한 경사와 높낮이가 있어서 익숙치 않은 회원들에게 상당한 도전이 되었다. 대회 후에 클럽하우스에서 있었던 디너와 시상식에서는 날씨 탓인지 코스탓인지 몰라도 평소보다 맥주가 2배로 서빙되었다.

아주 오랜 만에 오인석 회원(법대58)께서 참석하셔서 즐거움을 더해 주셨는데, 이날 참가한 회원은 아래와 같다.

G)곽선섭 권정덕 김광현 김동건 김문언 민준기 박기환 박상원 오인석 윤선구 이상원 임도혁 조달훈 한태진 (14명)

W) 김병순 김정필 박준구 오순문 이대영 이위곤 최병우 홍종만 (8명)

R) 김현미 안용희 조승자 홍선경 홍예경 (5명)

#### Close Pin (5 par 3 holes)

홍예경 이상원 임도혁 한태진 홍종만

#### 입상자

1등 한태진 (-8)

2등 김동건 (-3) 이상원(-2)

3등 권정덕 (-1) 윤선구 (-1) 조승자 (0)

#### 경비정산:

수입 \$3,240

지출 골프장 \$3,220.72 (그린피/디너)

상금 \$430.00

점심등 \$242.5

잔액 (-) \$653.22



**서울대학교 뉴욕동창회**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 Golf Outing

**2024.10.12 (토) 12:30PM**  
**SPLIT ROCK GOLF CLUB**

- 등록: 김병순 703.407.4928
- 장학기금: 박제순 201.321.9916



## 10월 동창회 장학기금 모금 추계 골프대회

뉴욕동창회에서 2024년 장학기금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열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Bronx에서 shotgun으로 여는 이 대회에 많이 참석해주시고 또 후배들과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12:30  
 11시30분까지 도착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장소(저녁 포함):** Split Rock Golf Club

**회비:** \$120

**등록:** 김병순 (kbs8717@gmail.com/703-407-4928)

**장학기금:** 박제순 (201-321-9916)



## 2024년 동계 Myrtle Beach Golf Trip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동계 Golf Trip 을 올해도 Myrtle Beach 에서 준비합니다. 작년에는 32명(guest 포함)이 참가하며 성황을 이루었으나, 숙소가 노후되고 비좁아 불편이 많았기에, 올해는 교통이 편리하고 넓직한 North Beach Resort, 5 Room Condo와 유명 Architect들이 설계한 Barefoot Resort 골프장을 선정하였으니, 관심있는 회원들은 10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기간:** 12월 8일(일)-14일(토)

**숙소:** North Beach Resort Tower Condo(일-목, 5박)

**골프:** 5 Rounds(월-금) Barefoot Golf Resort, Davis Love, Pete Dye, Tom Fazio & Gregg Norman Courses

<b>예상비용(1인당):</b>	Golf & Condo,	870
	식사 및 공동경비,	200
	금요일 추가 숙박,	100
	(소계)	\$1,170
	Van carpool(추가),	230
	독방 사용(추가),	400

**문의사항 및 참가신청:** 홍종만 646-342-2557

## 10월 하이킹 안내

어느덧 한여름 무더위도 지나고 단풍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NY Thruway Exit 18, New Paltz서부에 위치한 단풍시즌 최고 인기인 Minnewaska Lake 하이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인승 밴 2대로, Flushing 과 Fort Lee 에서 각각 출발하여 운전부담없이 편안한 단풍관광을 주선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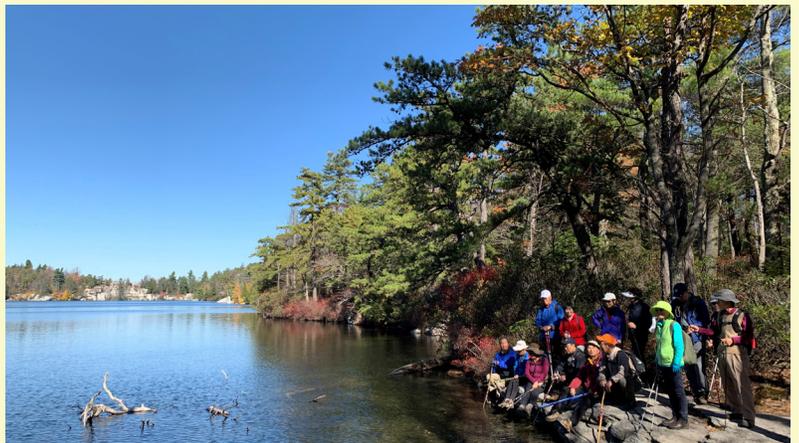
**일시:** 10월 17일(목),  
 Flushing 한양수퍼, 8시 출발  
 Fort Lee, 한남체인, 8시 30분 출발

\* Plattekill Service Area(Exit 17-18)에 들렀다가 Visitor Center(41.72898, -74.23736)에 10시 30분 도착

**대상지:** Minnewaska Lake State Park

**준비물:** 마실물과 점심 도시락, 개인 기호품

**참가문의:** 홍종만 646-342-2667



## 60년 세월 흔적 고스란히 담긴 김광현 회고전

인간은 누구나 인생 말년에 아름답고 멋진 흔적을 남기고 싶어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나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그러나 김광현 화백(미대57)은 이를 확실하게 입증해 보였다. 9월21일 뉴저지 리버사이드 갤러리에서 개최된 그의 생을 마무리하는 의미의 ‘흔적을 남기고(Leaving Traces)’ 회고전을 통해서다.

이날 전시회에서 그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이 담긴 70여점의 뛰어난 유화 및 그래픽 디자인을 통해 지난 60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으며, 산업디자인과 화단의 불모지이던 한국의 1960년대 당시 그가 그 분야의 선두주자로 첨단을 걸으면서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의 작품을 관람한 동문 선후배들과 지인들은 모두 감탄과 탄성을 아끼지 않았다. 구수를 앞둔 고령의 나이에 것처럼 방대하고 훌륭한 전시회를 하다니... 작품 하나 하나에 그만의 독특한 터치로 잘 표현된 작품에 모두 놀라는 분위기였다. 김광현 화백은 분명 아름답고 멋진 흔적을 남긴 사람임에 분명하다. 삶의 족적을 감동으로 마무리짓는 그의 행보가 존경스럽고 의미있게 다가왔다.

이날 전시회에는 고 효당 이세영여사의 한국화와 김 화백의 아내 고 김해정여사의 도자기 작품이 전시돼 더욱 빛을 받았다. 이래저래 오래오래 감동으로 남을 특별한 전시회였다. (글: 여주영)



회고전 리셉션에서 김광현 화백과 격려사를 하고 있는 정해민 고문



리셉션에 30여명의 골든클럽 회원들이 참석하여 축하를 해주셨다.



골프를 마치고 19홀에서 박기환 권정덕 오인석 한태진 홍종만 이대영



8월 29일 하이킹-이영범 조승자 조달훈 천병수와 손자들 홍종만



### 고애자 선배님의 회복 소식

허리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하셨던 고애자 선배님이 Gym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 훈련을 열심히 하시면서, '지팡이 없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날을 기대한다'며 환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사]** 홍종만 회장님이 6월 하순에 Fort Lee로 이사하셨고 새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5 Horizon Rd, Apt 1602, Fort Lee, NJ 07024

## 이달의 회원 소개 우규환 (사대60)

### 지금의 나의 나뉜 것은

#### 어린시절

1939년 경상북도 풍기에서 태어나 신학문보다는 유교적인 한문을 중요시 여기시던 부친의 영향으로 동몽선습, 격몽요결을 배우며 어린시절을 보냈다. 1945년 해방 후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좌익과 우익으로 갈려 싸움을 하던 1948년 풍기국민학교 4학년때 교실 밖에서 군인들이 공비들의 목을 잘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을 보기도 했다. 1950년부터 1953년 까지의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을 가지 못하여 인민군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도 있었고 종전시에 휴전을 반대하는 데모에도 참가하였다.

#### 청년시절

1954년부터 1957년까지 안동사범학교에 다닐 때 신문배달을 하면서 힘들게 졸업을 하고 18세에 풍기국민학교 교사를 시작하였다. 1959년 교사생활 말기에 본의 아니게 자유당의 315 부정선거 전초병이 되어 학생들의 가정방문을 통하여 선거 시 여당후보를 찍으라고 강권하기도 하였다. 1960년 대학입시를 보러 가면 근무지 이탈로 파면을 각오하라는 이산국민학교 교장의 협박을 물리치고 시험을 보고 합격하여 대학생이 되었고, 4.19가 일어난 날 경무대 앞까지 데모하는 군중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1964년 대학졸업후 ROTC 2기로 2년 군복무 기간 중 건강이 좋지 않아 대구 제2육군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였다. 대구 공군기지에 근무하는 친구 덕분에 대구-여의도 간의 수송기를 타 보는 새로운 경험을 뒤로 한 채 군복무를 끝내고 196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복학하였다. 대학원 시절에 국립맹아학교 고2 강영우의 가정교사로 수학을 한 두달 가르쳤는데 점자로 받아쓰면서도 이해가 빨라서 가르치는 보람이 있었다.

#### 유학시절

1968년 대학원 졸업후 미국유학을 위하여 영어회화 공부를 할 때 백인 여자선생의 미모가 아주 뛰어난 것이 기억에 남는다.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화학과 Graduate과정을 하는 중인 1969년에 화



학과 건물 3층에서 나는 총성을 듣고 실험실 복도에 피가 보이는 급박한 사건을 목격하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건 이후 가해자인 여학생은 연구를 계속하고 피해자인 남자교수는 목덜미에 봉대를 감은 채 영국으로 돌아가 특별한 Issue가 없이 지나갔다는 것이다.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박사과정을 거치기 위한 관문인 Preliminary Exam을 거듭 실패하여 쫓겨나게 되었는데, 나의 답안지에 대하여 채점도 하지 않고 낙제를 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참담하고 억울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970년 University of Detroit로 옮겨와 박사과정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박사과정을 마칠 때쯤 지금의 아내를 만나 1974년 결혼하게 되었다. 박사과정을 마친 후 Canada의 University of Guelph에서 Postdoc 기간에는 화학 반응분야의 새로운 경지를 연구하였다.

#### 한국 교수 시절

1976년 이화여대에서 교수 초빙을 받아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이화여대 김옥길 총장님과의 만남은 인상이 깊었고 1981년부터 모교인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로 옮겨서 2005년 정년퇴임까지 캠퍼스에 머물러 살았다. 10.26전후와 군사정부 시절의 캠퍼스는 학생데모로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구속된 학생을 석방할 때는 반드시 지도교수가 찾아가서 데려오는 관습이 있었다. 어떤 한 해의 사은회에서 여학생 가운데 한 명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1987년 Urbana Champaign Illinois University 교환교수로 갔을 때 Northern Illinois University교수로 재직하던 강영우 박사가 교회 부흥강사로 오게 되어 오랜만에 재회하는 기쁨을 누렸다.

#### 미국 생활

1968년 9월 미국 유학 출국시 Fullbright Travel Grant를 받은 것이 한국으로 귀국하여야 하는 족쇄가 되어 한국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아내는 이민 1세로 미국생활에 더욱 애착이 있는 상황이었다. 나의 정년 퇴임 4-5년전에 자녀들의 대학원 유학때문에 가족들은 미국에 먼저 오게 되었고 나는 정년퇴임 후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게 되었다. 2011년에는 Yellowstone National Park의 Cafe



1981년 서울대 교수 임용후 고향방문-풍기역에서

에서 두달 동안 일하면서 노동의 신선함을 맛보는 색다른 경험도 하였다. 2018년부터 골든클럽 컴퓨터 교실을 열심히 다니고 있다.

**신앙생활**

1989년 막내 딸이 아토피로 심히 고생을 하고 있어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내가 대신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의 은사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내의 오랜 기간 동안의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생각한다. 1990년도부터 서울대교수들의 교수기도회/성경공부 모임을 매주 꾸준히 하였으며, 서울대 총동원 전도집회도 가졌고 1999년에 서울대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협조하였다. 2006년 과천 한샘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았다.

**자녀들 및 아내**

3남매(딸, 아들, 딸)의 자녀가 있다. 나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념으로 큰 딸과 아들은 한동대를 졸업하였다. 두 딸들은 미혼이며 큰 딸은 약사로 일하고 있고, 작은 딸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한의사로 일하며, 아들은 하바드와 컬럼비아를 거쳐 뉴욕주 정부에서 건축사로 근무한다. 슬하에 손자 2명이 있다. 아내는 임

상 영양사로 DOJ 및 요양원 등에서 오랜동안 일했고 현재도 Part Time으로 Bronx에 소재하는 장애자들을 위한 시설의 식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김병순 취재)



2019년 8순잔치때 가족소개하는 유규환 교수

**낙상사고를 방지합시다.**

미국에서 노인들의 낙상 사고는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3명 중 1명은 매년 낙상을 경험하며, 이는 주요 부상 및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낙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은 특히 심각한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통계:**

**낙상 사고 빈도:** 매년 약 3천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노인이 낙상을 경험합니다.

**부상으로 인한 입원:** 낙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약 \*\*30%\*\*는 고관절 골절, 머리 부상, 팔이나 다리의 골절 등으로 인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며, 그 중 상당수가 입원을 합니다.

**응급실 방문:** 매년 약 300만 명의 노인이 낙상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0만 명은 낙상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습니다.

**사망 원인:** 낙상은 미국 노인들의 부상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 중 낙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약 36,000명입니다.

**경제적 비용:** 낙상으로 인한 의료비용은 상당히 높으며, 2020년 기준으로 약 500억 달러의 직접적인 의료비가 낙상 관련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니다. 이 비용은 입원, 응급실 치료, 재활, 장기 요양 등에 포함됩니다. 낙상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건강 관리와 생활 환경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노인들의 낙상 사고는 매우 흔하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생활 환경 개선**

**바닥 청결 유지:** 집안 바닥에 미끄러운 물건이나 전선 등을 제거하고, 깔개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명 개선:** 실내와 계단에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어두운 곳을 방지합니다.

**손잡이 설치:** 욕실, 화장실, 계단 등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이동 중에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적절한 신발 착용:**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여 균형을 유지합니다.

**2. 균형 잡기 위한 운동**

**스트레칭 및 근력 운동:** 다리와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은 낙상 방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균형 훈련:**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몸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3. 시력 및 청력 관리**



**정기적인 시력 검사:** 시력이 저하되면 장애물을 잘 보지 못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필요 시 적절한 안경을 착용합니다.

**청력 관리:** 청력이 떨어지면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고 필요 시 보청기를 사용합니다.

**4. 약물 관리**

**약물 부작용 체크:** 일부 약물은 어지러움이나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을 확인하고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 조정을 고려합니다.

**5. 정기 건강검진**

**뼈 건강 검사:** 골다공증은 낙상 시 골절 위험을 높이므로, 정기적으로 뼈 건강을 검사하고 필요 시 칼슘 및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합니다.

이러한 예방책을 통해 낙상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 기억에 남을 가족 여행

■ 정해민(법대55)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스위스랜드와 이태리를 가족과 함께 다녀왔다. 특별히 작은 딸(Nancy, David-사위)의 시부모와 같이 동행을 하여 그 뜻이 깊었다. 사돈은 Arizona 에서 우리와 합류하기 위하여 NJ 로 와서 같이 출발하였고 돌아 올때도 역시 우리 집으로 함께와서 이틀을 더 머문 후에 떠났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명승지를 답사 탐방하는 것 보다는 그 동안에 쌓인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해소시키기 위한 '쉽'을 위한것이 맞는 표현이다.

첫 도착지는 **Zurich, Switzerland** 였다. 우리가 보통 스위스 (Swiss) 라고 부르는데 실은 나라 이름은 Switzerland 이고 Swiss 는 일종의 Brand name이다. Swiss chocolate, Swiss wine, Swiss people.. 등으로 호칭하며 나라 이름은 Switzerland 라고 칭하는 것이 맞다.

호텔(Mandarin Oriental Palace) 방에서 내려다 보이는 루체른 호수(Lake Lucerne)는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다,



일부 주민의 저항으로 특징지어졌다. 중앙집권화된 헬베티아 공화국은 내부 갈등과 외부 압력에 직면하면서 수명이 짧았고, 1803년 붕괴로 이어졌고, 그 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발표한 중재법에 따라 스위스 연방이 복원되었다.

1798년 루체른의 경험은 국가가 옛 연방 체제에서 프랑스의 영향 하에 보다 중앙집권화된 형태의 정부로 전환하면서 스위스 전역에서 일어난 더 광범위한 격변으로 이어졌다.

### [이태리]

Switzerland 에서 이태리로의 자동차 두대로 이동했는데 중간에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여권을 보자던가 검색 절차도 없이 그냥 통과했다. 중간 지점 호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Lake Como(Lago di Como) 호수 가에 있는 역시 Mandarin Oriental Como Hotel, 에 여장을 풀었다.

**\*\*Lago di Como\*\***라고 불리는 코모 호수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호수 중 하나로, 수천 년의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코모 호수 주변 지역은 선사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로마 정복 이전에 켈트족이 살았다고 한다.

로마 시대에 코모 호수(당시 **\*\*Larius Lacus\*\***라고 불림)는 호수



1798년 루체른은 스위스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 전쟁과 그에 따른 헬베티아 공화국의 창설로 큰 영향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프랑스 혁명군은 스위스를 침공하여 구 스위스 연방을 전복했다. 스위스 중부의 주요 도시인 루체른은 스위스 연방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 프랑스는 이전에 상당한 자치권을 누렸던 느슨하게 연결된 칸톤을 대체하여 스위스에 중앙 집권적이고 통일된 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다.

1798년 4월 프랑스의 침공 이후 헬베티아 공화국이 선포되었고 루체른은 주요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새로운 정부는 프랑스 공화국을 모델로 한 중앙 집권 국가였으며, 이는 스위스의 정치적 지형을 크게 바꾸었다. 칸톤의 전통적인 권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많은 지역 기관이 해체되었다.

이 기간은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새로운 정권에 반대하는

가를 따라 호화로운 빌라를 지은 부유한 로마인들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가 되었다. 로마 작가이자 정치가인 플리니우스 더 영거는 이 호수에 두 개의 빌라를 소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이 지역은 롬바르드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코모 호수의 전략적 위치 덕분에 다양한 요새와 성이 생겨났으며, 그 중 일부는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 중세 시대에 이 지역은 여러 지방 영주들에게 분할되었고 신성 로마 제국과 이탈리아 지방 국가들 간의 더 큰 갈등의 일부가 되었다. 호수 주변의 마을들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 호수는 귀족과 부유층을 계속 끌어들이며 웅장한 빌라를 지었는데, 그 중 많은 빌라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빌라 데스테와 빌라 카를로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지역은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을 받았지만 유럽 엘리트들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로 남아 있다. 19세기에 코모 호수는 특히 영국 귀족들에게 주요 관광지가 되었고 호수의 아름다움과 온화한 기후가 어우러져 예술가, 작가, 음악가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되었다. 20세기 내내 코모 호수는 계속해서 인기를 얻어 유명인과 고위 인사들의 휴양지가 되었고, 럭셔리 여행지로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오늘날 코모 호수는 아름다운 풍경, 역사적인 빌라, 부자와 유명인의 놀이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관광, 영화, 패션의 인기 있는 장소로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잊지 못할 생일 파티:**

여기 와서야 이번에 딸 들이 왜 우리 부부와 가족 전체 그리고 사돈 내외까지 이 곳으로 초청을 했나 하는 의문 점이 풀렸다. 다음 아님 이날 저녁의 호텔에서서의 'Summer Gala La Dolce Vita' 라는 1년에 한번 있는 축제의 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년 전 부터 예약을 해야 겨우 참가할 수 있다고 하며, 마지막 크라이막스는 엄청난 규모의 호수 상의 불꽃 놀이였다. 참으로 경이로운 풍경이었고 파티 내내 이태리 가곡을 남, 여 가수 1명이 번갈아 부르고 춤도 추는 경우가 많았다. 이태리 가곡 중에는 1950년대 대학재학중 가끔 들렸던 음악 감상실에서 들던 귀에 익은 곡들이 있어 옛 추억에 빠져들기도 했다. 참으로 잊지 못할 황홀한 밤의 축제였다.



내 생일이 8월, “이 것이 내 생일파티였구나!” (생일 케익은 돌아와서 간단히 잘랐지만..)

다음날은 **Milan** 으로 이동했다. 처음으로 그 유명한 대 성당을 안 내원의 안내로 관람했다. 일반적으로 두오모로 알려진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건축은 건축가 아르놀포 디 캄비오의 설계로 1296년에 시작되었지만, 그 구조물은 1436년(140년)에야 완성되었다. 르네상스 건축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이다.

공학의 경이로움인 대성당의 돔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건설된 가장 큰 벽돌 돔으로 남아있다. 이중 꺾질과 헤링본 벽돌 패턴의 사용과 같은 브루넬레스키의 혁신적인 기술은 당시 획기적인 비계 없이도 거대한 돔을 지을 수 있게 했다.

두오모의 외관은 흰색, 녹색, 분홍색 대리석의 멋진 혼합으로 덮여 있어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외관을 연출한다. 내부는 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며, 구조물의 웅장함을 강조한다. 대성당은 지오토의 종탑(종탑)과 성 세례당을 포함한 더 큰 단지의 일부이다. 이 구조들은 르네상스 시대에 피렌체의 종교적, 정치적 힘을 나타낸다.



회원 명단 (111명 / 2024-9-25)

강교숙	김상만	배상규	윤상영	이흥빈	최학주 한민우 한영오 한태진/ 한용희 허용선 허유선 홍정표/ 홍종만/ 홍예경
강에드	김승호	성기로	윤재욱	임도혁	
강영선	김영덕	손갑수	윤종숙	임호순	
계동휘	김영만	손경택	윤현남	정도현	
고애자	김우영	손대홍/	이강홍	정수일	
곽상준	김익성	남종현	이민제	조달훈/	
곽선섭	김정필	손옥화	이상무	조승자	
곽승용	김종율	송근숙	이상원	정해민	
권문웅	김창수	송웅길/	이승준	조상근	
권정덕/	김충정	송현자	이 준	조상선	
홍선경	김치갑	송학린	이대연	주재양	
권영대	김태일	송혜순	이대영	진봉일	
권태전	김한중	신진식	이영범	천병수/	
금영천	김현중	신응남	이용대	천종화	
김광수	노승만	오순문	이위곤	최구진	
김광현	노용면	오영호	이전구	최병우	
김동건	민준기	오인석	이종대	최순채	
김문경	박기환	우규환	이종석	최준희	
김문언	박상원	유무영	이준행	최진영	
김병순	박희병	윤선구	이행순	최한용	

2024년 연회비 납부 명단 88명 / \$8800 / 2024-9-25

강에드	김병순	민준기	신진식	이영범	조승자	홍지복 홍선경 홍종만 홍예경 홍정표
강영선	김상만	박기환	오순문	이용대	조상근	
계동휘	김영덕	박상원	오용호	이전구	진봉일	
고애자	김영만	박준구	이위곤	이종석	천병수	
권문웅	김우영	박희병	오인석	이종대	천종화	
권영대	김익성	배상규	우규환	이 준	최병우	
권정덕	김정필	성기로	윤상영	이행순	최준희	
권태전	김종율	손경택	윤선구	이흥빈	최학주	
금영천	김태일	손갑수	윤종숙	임도혁	최한용	
김광수	김한중	손대홍	윤재욱	임호순	한민우	
김광현	김홍빈	송근숙	이강홍	주상선	한용오	
김동건	김현중	송학린	이대영	정수일	한태진	
김문경	남종현	신응남	이상원	정해민	한용희	
김문언	노승만	신두식	이승준	조달훈	허유선	

[2025] 정수일

2024년 후원금 기부 명단 (28명 / \$12,400/2024-9-25)

강에드 200	김한중 300	이강홍 200	정수일 300
계동휘 300	노승만 100	이위곤 100	정해민 1000
권정덕 300	성기로 500	이전구 1000	최상립 2000
금영천 300	손경택 1500	이종대 200	최준희 400
김광현 200	신두식 200	이 준 100	최한용 200
김문경 200	신진식 300	이행순 200	한태진 500
김종율 200	오용호 300	임호순 300	홍종만 1000

2024년 입회비 납부 명단

한민우 200 이위곤 200  
노승만 200

발전기금 기부명단

이준행 1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

주소 (Home):

골든클럽 2024년 행사 일람 (2024-9-25)

1월	24일 (수)	Zoom 경제 세미나 (14명 참석)
2월	22일(목)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3월	21일 (목)	Hiking
	23일(토)	신년교례회 - Double Tree Hotel, NJ
4월	25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Golf Club (36명참가)
5월	23일 (목)	Hiking (6명 참가)
6월	6일(목)	Golf Outing - Split Rock Golf Club (45명참가)
	27일(목)	Hiking
7월	11일(목)	Golf Outing Wallkill Golf (29명참가)
8월	15일 (목)	Golf Outing (33명참가)
	22일(목)	골든클럽 피크닉 - Alpine Pavillion (150명 참가)
9월	12일(목)	Golf Outing-Hudson Hill Golf Club(27명 참가)
	26일(목)	Hiking
10월	12일(토)	동창회 추계골프대회-Split Rock
	17일(목)	Minnewaska Lake 단풍관광 & 하이킹
11월	7일(목)	Golf Outing
12월	7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9일-14일	Myrtle Beach Golf Trip
3월	22일(토)	2025년 신년교례회-Hilton Hotel Meadowlands

골든클럽 당구 모임: 매월 첫째/셋째 금요일 오후 1시  
Star Billiards, Palisades Park, NJ



10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강에드 (사대60)
- 노용면 (의대49)
- 손대홍 (미대79)
- 우규환 (사대60)
- 임호순 (공대52)
- 조달훈 (사대66)
- 홍정표 (음대67)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